



[해설] 10년 내다본 기업인  
故 최중현 SK회장의  
경영철학 재조명  
03



Economy

코스피	2282.79 (0.00)	코스닥	784.81 (0.00)
금리 (미국 3년)	2.04 (-0.01)	환율 (원-달러)	1128.90 (+11.70)(10일)

# 市場 맞선 투기와의 전쟁... 양극화만 더 키웠다

##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매매가 20% 꺾음  
집 사려면 평균 7억원 필요  
한강 이남 22% '상승폭 최고'  
최근 4개 정권 중 상승률 최대



지난해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오히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최근 15년간 역대 정권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가장 가팔랐다. 부동산정책 1라운드 결과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집권 1년차, 서울 집값 변동률 '최대'

12일 메트로신문이 부동산114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8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

재인 정권의 집권 1년차 서울아파트 매매가는 현 정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2017년 5월 12일~2018년 5월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3%나 올랐다. 한국감정원 공시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5월 5억7029만원에서 서울 5월 6억9444만원으로 뛰었

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7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강 이남은 21.98%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강 이북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도 각각 16%, 12.93% 올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매매가가 8.98% 상승했다.

현 정권처럼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1년차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88% 올랐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1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4.1% 올랐으며 수도권에서 14.95%, 한강 이남

19.23%, 한강이북도 8.43% 상승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초기엔 오히려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의 집권 1년차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93%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3.18%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4.17%, 한강 이남은 -7.3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도 집권 1년차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에선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0.34% 떨어졌고 수도권은 0.17%, 한강 이북은 1.7%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공시에 따르면 2013년 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4억9417만원에서 2014년 2월 4억9245만원으로 떨어졌다. 불과 4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2억원이나 오른 셈이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와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과 2018년 3월 일부 유가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메트로경제가 미래 언론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 위주의 기사를 발굴해 온라인, 모바일,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서 취재기자 (수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취재 역량평가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모집인원: 0명
-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 간: 2018년 8월 10(금)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6시까지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8월 2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년 8월 24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대입 수시 설명회 몰린 학부모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열린 2019 대입 수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 가계부채 둔화 속 신용·자영업 대출은 적신호

### 7월중 신용대출 6000억 ↑ 자영업 대출 2조원대 증가세 금리상승기 부실리스크 우려

최근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돼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신용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0.59%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대출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조원, 전월 대비 7000억원 작은 규모의 증가세다.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7월 6조7000억원이었는데 올 7월은 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1조9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달에 비해서도 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가계대출현황을 뜯어보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여전하다는 이면이 존재한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증가폭은 1조원으로, 지난달에 대비 1000억원 늘어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2금융권 지난달 총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대비 4000억원 감소

했지만 오히려 기타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폭은 늘고 있다. 신용대출은 7월중 6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또 6월에 비해서도 4000억원이 늘어났다.

문제는 신용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신용대출 금리상승은 가계대출 부실리스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3.95%, 하나은행 4.91%, 농협은행 3.95%, 신한은행 4.56%, 우리은행 3.79%로 지

난해 9월에 비해 각각 1.25%포인트, 0.56%포인트, 0.49%포인트, 0.62%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평균 등락률은 0.59%포인트에 달한다.

게다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15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1조원대였던 대출증가폭은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한화, 5년 간 22조 투자 3만5000개 일자리 창출



한화그룹이 앞으로 5년간 22조원의 투자에 나선다. 태양광과 방산, 석유화학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한화그룹은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22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3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은 한 해 평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3조2000억원)보다 37%나 늘린 수치다.

부문별로는 항공기 부품 및 방위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 4조원을 투입한다.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방위 산업의 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5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규 리조트와 복합 쇼핑몰 개발 등 서비스 산업에도 총 4조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1위 태양광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